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10001
Phone : 646. 832. 7397
212. 736. 8500 (EXT 355, 384)
Website : https://stfrancisnyc.org/
Email: seoulosb@gmail.com

주임신부 : Brian J. Jordan, OFM
지도신부 : 이웅희 루카 (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luke0829ofm@gmail.com
전교수녀 : 안 마리루시 (툿찡포교베네딕도회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 장철순 스테파노 646. 322. 2139 stfrancis.cj@gmail.com

제1독서 | 탈출 22,20-26

화답송 | 시편 18(17),2-3ㄱ.3ㄴㄷ-4.47과 51(◎ 2)



○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은 저의 반석, 저의 산성, 저의 구원자시옵니다. ◎
○ 주님은 저의 하느님, 이 몸 숨는 저의 바위, 저의 방패, 제 구원의 뿔, 저의 성채시옵니다. 찬양하올 주님 불렀을 때, 저는 원수에게서 구원되었나이다. ◎
○ 주님은 살아 계시다! 나의 반석 찬미받으시리니, 내 구원의 하느님 드높으시다. 주님은 당신 임금에게 큰 구원 베푸시고, 당신의 메시아에게 자애를 베푸신다. ◎

제2독서 | 1테살 1,5ㄴ-10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알렐루야.

복음 | 마태 22,34-40

영성체송 | 당신의 구원에 우리가 환호하며, 하느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리이다.

성가 | 입당 415 예물준비 249(236)
영성체 157(158) 파견 270

신앙고백: 사도신경

† 전능하신 천주 성부

◎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밑줄 부분에서 고개를 숙인다.)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미사 봉헌

연미사 지향

- 김예경 안젤라 Helene, Johansson
- 문귀영 베드로 영혼을 위하여
- 최규혁 미카엘 영혼을 위하여
- 임순남 엘리사벳 영혼을 위하여

생미사 지향

- 조하나 이레나, 박상미 이레나 생일 축하
- 한이안 세례자요한 아기
- Fr.이웅희 루카
- 한인공동체의 일치를 위하여
- 문상민 안나의 빠른 쾌유
- 강명옥 프란치스카의 쾌유를 위해
- 김영지 멜라니아의 빠른 쾌유
- 최윤석 시몬 축일 축하
- 윤 요한의 빠른 쾌유를 위해

날짜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	성체 분배	복사
10월 25일	국민준	강호영	전푸름	강호영 전푸름	이영혜 진서윤	허우현 김수현
11월 1일	백이백	정은철	김미혜	정은철, 김미혜	김종선 진서윤	한서희 김수현 양지수 허우현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대성전	
청년 미사	매달 둘째 토요일 오후 4:00 아래성당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면담 후 결정	*신청:Sr.마리루시
유아 세례	면담 후 결정	*신청:Sr.마리루시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Sr.마리루시
예비신자 교리	일반인을 위한 교리	*신청:Sr.마리루시
견진 교리	방문교리(환자/어르신)	*신청:Sr.마리루시

*** 오늘 2차 헌금 있습니다.**

*** 11월 1일 미사는 작은형제회 한국관구 윤여원 (요아킴) 신부님께서 공동주례하십니다.**

주일 미사 후 친교 모임

산 다미아노 홀/ 성당 밖 좌측 20m
오랜만에 성당에 나오신 분, 새로 전입오신 분, 처음 뵙는 분들께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나눕시다.

재속프란치스코회 뉴욕 한국순교자형제회

(Monthly Meeting: Secular Franciscan Order of New York Korean Martyrs Fraternity)
일시: 매월 첫째 주일 12:00-5:00 PM.
장소: 아랫성당(Church of St. Francis of Assisi)
대상자: 지원자/ 입회자/ 유기서약자/ 종신서약자
문의: 718-344-9790 정기열 프란치스코

2027년 부활 세례/견진성사 예비자 교리

2027년 부활성야에 세례/견진 받으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대상: 1)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예비신자)
2) 세례를 받은 사람 중 견진 희망자
(다른 성당에서 세례를 받은 분은 **세례증명서 제출** 필수)
모집기간: 10월 말까지
교육기간: 2026년 9/13(진행 중)- 2027년 4/25(주일)
장소: 1:00PM-2:30PM, 프란시스룸(**11/1 3층 회의실**)
신청 방식: 신청서 신청/제출(seoulosb@gmail.com)
신청/문의: 646-832-7397 (Sr. 마리루시)

2027년 주보 광고 신청

2027년 주보 광고 신청 받습니다. 사업체 광고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바랍니다.
신청마감 : 11/29(주일)까지,
게재비: $300(수납:재무데스크)
신청/문의: 646. 832. 7397 (Sr. 마리루시)
* 주보의 기존 광고는 올해 말까지 지속됩니다.

'세상을 떠난 모든 이들'을 위한 연미사 봉헌

11월 1일(주일) 미사 때 11월 2일(월) '위령의 날'을 대신하여 연미사 지향으로 세상을 떠난 모든 이들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이날 **세상을 떠난 가족이나 친척, 지인 등의 사진(액자)**을 가져오시면 미사 전 제대 앞에 두고 미사를 봉헌합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 바랍니다. 이날 연미사 봉헌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미리 신청 부탁드립니다. * 연미사 당일 신청 가능
신청기간(사진): 10월 31일(토)까지
문자신청: 646-832-7397 (Sr. 마리루시)

제16차 성장세미나(성령쇄신봉사회)

일시: 11/13(금) 1:00PM-11/15(주일) 5:00PM
장소: 뉴튼수도원 (289 US-206, Newton,NJ 07860)
참가비:$320(식사/숙비 포함) + 교재비 별도$20
대상: 기초성령세미나를 받은 분으로 영적 성장과 공동체 봉사를 원하시는 분
신청/문의: 917-929-4242(성령기도회장 민재인 데레사

2026 사랑의 음악회(주관:하늘처럼 성가대)

일시: 11월 21일(토), 7:00PM
장소: 대성전(티켓 수령 후 6:30PM부터 입장가능)
티켓 및 구매방법: 성인 $25, 청소년 $15 (12세 이하 무료)
- 현장 구매(매주일 미사 후 산다미아노 홀 티켓판매처)
- VENMO: @Pureum-Jeon
ZELLE: 646-565-1746(Pureum)
- Check, Venmo, Zelle 의 **Memo** 에 "**이름과 음악회 티켓 갯수**" 반드시 기입 바랍니다.(예: 전푸름 어른 2 청소년 1 $65)

후원금 기부 : Cash or check: 후원자 성함 또는, 익명
Venmo: @Pureum-Jeon / Zelle: 6465651746
(Check, Venmo, Zelle의 Memo에 **"후원자 성함"** 과 **"2026 음악회"** 기입 바랍니다)
* 공연 후 간단한 다과회가 있습니다.
* 음악회 수익금은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성당의 마이클 저지 OFM 빌딩 펀드와 한인 커뮤니티의 발전을 위해 사용됩니다.

한인공동체 설립 30주년을 위한 묵주기도

지난 주(10/18): 1,857 단 **누적 집계:** 2,477 단
주관: 맨하탄 한인공동체 꾸리아(Curia)
문의: 347-633-3767 (꾸리아 단장 윤 루시아)

오늘의 말씀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마태 22,37)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주보 기부

⚛ 신앙의 선조들을 찾아서

124위 복자 : 복자 김화춘 야고보 (? ~1816)



김화춘 야고보는 충청도 청양에서 태어나 보령으로 이주해 살았다. 1839년 순교한 김대권 베드로가 그의 형이다. 온순하고 참을성이 많았던 그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교리를 배웠으며, 기도와 성경 읽기에 힘썼다. 이후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 경상도 청송으로 이주하였다.

1815년 을해박해 때 체포된 그는 경주와 대구에서 혹독한 문초와 형벌을 받았으나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 당시 사형 선고문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다.

"김화춘은 아버지로부터 천주교 신앙을 배워 대대로 죄악을 저질러왔다. 모두 어리석고 무식한 자들로, (천주교 교리를) 귀로 전해 듣고 입으로 외우면서 그 사악한 말을 깊이 믿었다. 여러 차례 형벌과 문초를 당하면서도 죽기를 맹세하고 뉘우치지 않으니, 그 요사하고 사악함이 아주 지극하다."

김 야고보는 대구 형장에서 참수형으로 순교하였는데, 그때가 1816년 12월 19일이었다. 그의 시신은 형장 인근에 매장되었다가, 이듬해 3월 친척과 교우들에 의해 거두어져 적당한 곳에 안장되었다.

성화_김형주 作,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하느님의 종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6

*출처: <의정부주보>, No. 1206, 가해, 2026. 10.25.

투병 중이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택영알버트 이옥기수산나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박재호베네딕트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이병국요한

옥토
한중식 전문점
(646) 833-7864
1 E 33St. NY,NY10016
(33가, 5애비뉴-매디슨 사이)
www.octo.nyc

WONJO
K BBQ since 1993
(212) 695-5815
23 W32St.NY,NY10001
www.newwonjo.com

UDON Lab
Udon & Izakaya
(646) 838-5338
43W 32nd St. New York, NY 10001
www.udonlab.com @udonlab_nyc

더큰집
The Kunjip
(212) 564-8238
32 W 32St. NY,NY10001
www.kunjip.nyc

Kim & Bob Shop
김밥, 비빔밥, 떡볶이 & More
배달 및 포장 전문, 케이터링 주문 환영
(929) 797-1212
826 9th Ave, New York, NY 10019
Between 54 & 55th Street
www.kimandbobshop.com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WEST 58 WINE & LIQUOR
린다김 데레사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0AM-10PM / SUN:12PM-9PM

마리아 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TEL. 212-594-7773, 646-808-7322

이민/부동산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CARGOZONE
LOGISTICS INC
양서윤 플로라 | Flora Yang
marketing@czlusa.com
657-337-5130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917) 370-0394
krishap@nestseekers.com

Clear Laser CITY CLINIC
얼굴 리프팅 / 색소·미백·레이저
보톡스 / 필러 / 여드름 흉터
Tel 212-697-1802 Text 917-670-7801
501 5th Ave #1601, NY, NY 10017

PETIQUE SALON
DOG GROOMING · DAYCARE · BOARDING
Petiquesalon@gmail.com
강동호 베드로
917-419-7444
444 2nd Ave, New York, NY 10010

MIDTOWN SMILE DENTAL
hello@midtownsmiledental.com
임지수 마리아
(212) 532-8666
36 E 36th St. Suite 1K
(36가, 매디슨-파크 사이)

HAPPY HOME CARE
이지원 라파엘라
Registered Nurse
(347) 927-5635
happyhomecare.rn@gmail.com
1:1 맞춤 방문 간호
(투약·검진·돌봄)

Colleen Insook Lee,M.D.
이인숙 내과
Tel: (212) 714-1170
Fax: (212) 290-9061
drleesmedical.mht@gmail.com(Bet. 32 & 33 St.)
1270 Broadway, #405 New York, NY 10001

RESTORE STUDIOS
Dr.Iris M. Kim, PhD
▸레드라이트 테라피 ▸컴프레션 마사지
▸BREATHWORK ▸라이프 코칭
(212) 796-7414 6 East 39th St, Suite 300 New York, NY 10016
info@restorestudiosny.com

다시 만난 신약 성경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
(갈라 1,7)

안소근 실비아 수녀(성도미니코 선교수녀회)

바오로 사도의 서간들 중에서도 갈라티아서는 로마서와 더불어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서간으로 유명합니다. 지난 주에 우리는 바오로 사도가 양보의 여지 없이 강하게 주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역설하고, 오직 믿음에 의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갈라티아서의 후반부에서는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와 인연이 끊겼습니다”(5,4)라고까지 합니다. 그런데 또 바로 이 갈라티아서에서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만이 중요할 따름입니다”(5,6)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율법, 자유, 믿음, 사랑, 행동. 이 단어들을 어떻게 이을 수 있을까요? 율법은 “감시자”(3,25), 길잡이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서 벗어나기만 한다면, 오히려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자유롭게 되었다 하더라도 행동하는 사랑에는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유로운 사람은 어떻게 사랑에 이를 수 있을까요?

바오로 사도는 자유를 사랑으로 방향 지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5,16)라고 말합니다. 신호등 같은 것이겠지요. 그리고 성령은 길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움직이십니다. “성령의 열매”(5,22)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자유로워진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실 때, 씨앗과 같은 성령이 사랑, 기쁨, 평화 같은 여러 열매들을 맺습니다(5,22-23 참조). 그렇지요, 그 열매들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맺으시는 열매입니다. 기본적으로 믿음이나 사랑은 인간이 애써서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나의 힘으로 사랑, 기쁨, 평화의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일은 율법 조항 몇 백 개를 지키는 것보다도 더 힘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바리사이 못지않게 사랑하라는 계명에 짓눌려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 성령을 청하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기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십시오”(5,16).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실 때, 우리는 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를 수도 있고, “육(肉)의 욕망”을 따라 살 수도 않을 것입니다.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에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스스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수 있게 하는 자유입니다. 인간에게 육이 있으니, 바오로 사도가 말하는 “육의 욕망”도 우리 안에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에게 이기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착각이겠지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자유롭게 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만 그 자유를 육을 위하는 구실로 삼지 마십시오.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5,13).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안에서 성령을 거스르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자유롭다면, 그 어떤 걸림돌에도 넘어지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걸어갈 수 있을 은총을 청합시다

* 출처: <의정부주보>, No.1204, 2026, 가해, 2026. 10. 11.

그림묵상



주님과 나 | 일곱 개의 성체 조각으로 한 주 동안 참례한 매일 미사의 은혜를 돌아봅니다. 때론 동그라미가 되어 밖을 향하고, 때론 사각형이 되어 안을 향했던 성체와의 대화는 세상의 모든 번잡함을 조용히 정돈해 주었습니다. 부족한 나의 준비에도, 당신은 매번 모두를 내어놓으셨음을 기억합니다.

글 · 그림 하삼두 스테파노 | 작가

* 출처: <서울주보>, 제2636호, 2026년 10월 25일